

대못·철판 무장 中어선들과 목숨건 사투

목포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장 동행 취재

지난 16일 오후 4시 신안군 흥도 남서방 35마일 해상. 목포해경 소속 3009함(함장 김충관 경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풍랑주의보때 흑산도에 잠시 피해 있다 돌아가던 중국 어선들이 서해안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그물을 내렸다는 보고가 단속 헬기로부터 전해지면서다. 먼 바다로 나갈수록, 파도는 거칠어졌다. 3m 넘는 파도는 3000t급 경비함(길이 112m)을 잠깐잡 다루듯 오르락내리락 흔들었고 느닷없이 갑판을 덮쳐 휩쓸고 나가기를 반복했다.

정선 명령에 그물 끊고 도주...헬기로 추격전 갈수록 흉포화...승선 시도하던 대원 부상도

격렬속에서도 경비함은 24 노트를 유지하며 전진을 계속했다. 웃이 흙백 짓고 급세 무언가를 계획할 듯 속이 울렁거려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었지만 '비상 경계령'이 떨어진 경비함 내 승무원 54명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중국 유자망 어선 12척, EEZ 내측 35마일에서 불법 조업중이다. 중국 해역 가까운 6척이 '타깃'이다. 1조는 침투해 제압해라. 2조는 압호하고 지원을 맡아라. 이상."

김 함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대원들은 "안전. 안전. 화이트" 구호를 외치며 단속 장비를 켰었다. 대원들은 방검복을 챙겨 입고 K-5 권총을 비롯, 진압봉, 방패, 폭음탄에 최후탄으로 무장했다. 중국 선원들이 망치·갈 등을 휘두르는 등 저항 방식이 흉포해지면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달됐다. 한 대원은 "단속에 나설 때마다 목숨을 건다"고 했다.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갈수록

격렬해서 단속 중 부상을 입는 대원도 적지 않은데, 철판·쇠창살 등으로 무장해 쉽게 오르기도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10분쯤 흘렀을까. 멀리 '빨간 깃발'을 단 중국 선박 10척이 눈에 띄었다. 길이 30m, 30t급 유자망 어선들이다. 김 함장은 "유자망은 지난 8월 1일부터, 타망은 16일부터 허가 받은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이 가능하지만 이들 어선들은 허가없이 조업을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6명의 특공대가 2척의 고속단정에 나눠 승선한 뒤 대기했다. 확성기로 "배를 멈춰라"는 정선 명령이 내려졌다. 기다렸다는 듯 중국 어선들은 배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곧이어 승선을 시도하던 대원 한 명이 팔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가 전해졌다.

"헬기 투입." 김 함장은 헬기 활용을 이용해 선박의 이동을 막았다. "단정 하강." 드디어 특공대의 단속 명령



지난 16일 오후 신안군 흥도 남서쪽 해상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가 태풍의 위력에 버금가는 날개 바람을 이용,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30t급 무허가 중국 어선의 움직임을 차단한 가운데 고속단정이 단속을 위해 중국 어선에 접근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이 떨어졌다. 고속 단정은 바다 위에 내리자마자 40노트의 엄청난 속도로 중국 선박에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원들이 2m 높이의 '철판'을 두르고 대못을 설치한 배에 오르는 게 쉽지 않았다. 울해 목포 해경 관할 구역에서 '철판' 두른 배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곧이어 승선을 시도하던 대원 한 명이 팔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가 전해졌다.

"헬기 투입." 김 함장은 헬기 활용을 이용해 선박의 이동을 막았다. "단정 하강." 드디어 특공대의 단속 명령

중국 선박 10m 위까지 내려갔다. 태풍에 버금가는 초당 60m의 헬기 하강풍이 순식간에 '철판'을 날려버렸다. 특공대원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중국 배에 재빨리 올라갔다. 무려 치한 배에 오르는 게 쉽지 않았다. 울해 목포 해경 관할 구역에서 '철판' 두른 배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곧이어 승선을 시도하던 대원 한 명이 팔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가 전해졌다.

이날 3009함은 허가 없이 100kg 상당의 조기·삼치 등을 잡은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적발했다. 합동 단속에 나섰던 서해해양지방경찰청은 이날

태안·군산·목포에 합정 32척과 항공기 5대를 동원, 하루에 10척(무허가 조업 8척·제한조건 위반 2척)의 중국 어선을 적발했다.

김수현 서해해경정장은 "불법 조업 선박이 우리측 황금 해역을 남탈 수 없도록 단속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단도 17일 국가 어업지도선 무궁화 25호(길이 68m, 무게 114t, 최대 17노트) 취항식을 갖고 불법 어선 단속에 나섰다.

/신안=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1분 해질 17시 54분 달출 17시 22분 달몰 06시 40분

원만한 가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점차 구름 많아지겠다.

광주	맑음	9/22℃
목포	맑음	10/21℃
여수	맑음	13/20℃
나주	맑음	7/21℃
완도	맑음	11/22℃
구례	맑음	8/23℃
강진	맑음	8/22℃
해남	맑음	7/22℃
장흥	맑음	7/22℃
순천	맑음	7/22℃
영광	맑음	8/22℃
진도	맑음	9/21℃
전주	맑음	8/21℃
군산	맑음	6/20℃
남원	맑음	6/21℃
흑산도	맑음	14/18℃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0.5m 파고 0.5~1.0m 주의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0.5m 파고 0.5~1.5m 주의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0.5m 파고 0.5~1.5m 여수 08:28~02:08 20:45~14:2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0/22	11/20	12/20	12/19	12/21	11/20

내년부터 부실대학 정리·정원 감축 추진 '학생 충원·취업 저조' 지방대학 비상

교육부 평가 '최하위그룹' 퇴출...2020년까지 15만명 감축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실 대학 정리와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해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대학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 학생 충원과 취업률 등 주요 평가 지표들이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는 201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절 대평가 등을 통해 대학 퇴출과 정원 감 축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17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열어 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팀은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을 정성 평가하는 절대평가 를 시행,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하 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구분기로 했다.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며, 최하위그룹은 학교폐 쇄(퇴출) 조치를 한다.

대학 정원은 상위그룹은 자율적으 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하위·최하 위그룹에는 정원 감축 폭을 차등 적용한다. 이와 병행해 내년부터 정부 의 모든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대학 특성화 및 정원 감축과 연계한다.

정부는 2018년이던 대학입학정원 이 고교 졸업생보다 9146명이 많은 역전현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2020년 까지 대학정원을 현재보다 15만명은 줄여야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들불야학' 옛터 5·18사적지 지정

광주시는 17일 광주·전남 최초의 민중야학이자, 노동야학 운동의 씨앗을 뿌린 '들불야학' 옛터를 5·18사적 지로 지정·고시했다.

'들불야학' 옛터는 1980년 5월 당시 들불야학 출신들이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투사회보를 제작

군에 간 아들 공금하면 부대로 전화하세요

군, 수신전화기 6652대 설치

국방부는 17일 군(軍) 북부 중 인 아들이나 친구들의 안부가 궁금할 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수신전화기 6천652대를 전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사들이 부대 내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걸었을 때만 통화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가족이나 친구가 부대로 전화를 걸 수 있게 됐다.

수신전화는 병사의 가족이나 친구가 일과시간 이후 전화를 걸면 중대 행정반에 근무하는 당직근무자가 전화를 받아 해당 병사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부대별 수신전화번호는 해당 부대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이나 병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전남 중등교사 335명 선발

전남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전남 지역 공·사립 중등교사 335명을 선발 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발 예정인원은 공립이 국어 31 명·역사 25명·수학 33명·영어 35명·체육 21명 등 20개 과목 333명이다. 사립은 역사·물리 각 1명씩 2명이다. 이번 시험부터는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시험제도도 3단계에 의해 현재의 농성공정으로 옮겨졌다.

응시원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jne.go.kr)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접수한다. 자격은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다. 내년 2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포함된다. 또 올해도 전남 설치역 장기 근무 희망자를 별도로 모집한다. 시험일정은 1차 12월7일, 2차 내년 1월15일과 21~22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5일 발표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바른성사! 결혼성사시까지...**

(백영숙 이사, 유정선 부원장 출연)

성사율 호남 1위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중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교원, 전주고등학교교원]

초혼		재혼	
남	女 추천회원	남	女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의사, 변호사	32~6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회사원, 자영업	33~70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5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자영업, 가사	35~63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신동

함께해요 국민행복, 제2새마을운동으로!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2013년 10월 20일(일) 순천팔마체육관

전일행사 축하공연

일시 | 2013년 10월 19일(토)

장소 | 순천팔마체육관 보조경기장

행사일정 | (16:00~18:00)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유료), 홍보영상, 식전공연

본대회

대회주제 | 함께해요 국민행복, 제2새마을운동으로!

일시 | 2013년 10월 20일(일)

장소 | 순천팔마체육관

행사일정 | 식전행사 : 환영인사, 홍보영상, 축하공연

본 행사 : 포상수여, 제2새마을운동 영상보고, 비전퍼포먼스 등

주최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 전라남도새마을회 후원 안전행정부 전라남도 순천시